

저자 인터뷰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장

근본교리 알면 불교적 대안 척척

1995년부터 '법공양' ... "원력 세워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뤄져"

"불자들은 불교를 접함에 있어 그 핵심이 되는 근본교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기본인 교리를 모르는 것은 집을 지을 때 1층을 짓지 않고 2,3층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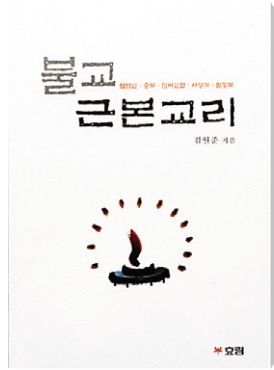
월간 <법공양> 발행인 이자 도서출판 효림의 대표로 있는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 원장(57)은 최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불교의 응용분야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이때, 불교 본연의 가르침을 보다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본 바탕이 있어야 현재 각종 사회현상과 문화적 변화에 불교계가 대안을 제시하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12년간 한국불교를 연구했으며, 우리문화연구원 원장, 성보문화재단연구원 2대 원장 등을 역임한 김 원장은 이런 생각을 담은 책 <불교근본교리>를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삼법인, 중도, 12인연, 사성제 등 근본교리를 정리했다. 각 항목마다 사례를 들고, 의미를 되짚고, 요약하거나 강조하는 식으로 구성해 어려운 교리를 쉽게 전달하고자 했다.

불법홍포의 원력 때문일까. 7월 12일 서초동 도서출판 효림의 집필처에서 만난 김 원장의 얼굴은 밝았다. 그에게 불교를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향후 불교계의 방향에 대해 들어 보았다.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 원장은 지금까지 <생활 속 예불문> <생활 속 반야심경> <침회·참회기도법> 등 불교 입문서를 펴냈다. 김 원장이 신간 <불교근본교리>를 들고 밝게 웃고 있다.

간 내 얘기와 같구나 하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불교 공부에 심취했습니다.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지" 하는 마음에 고등학교 시절 공부보다는 경봉, 성철, 일타 스님 등 당대 큰스님을 찾아뵙고 불교 책을 보곤 했습니다. 불교를 믿지 않던 부모님은 당연히 이런 저의 생각이 반대하셨습니다.

그 때의 일화입니다. 경봉 스님이 계시던 통도사 극락암에 갔습니다. 당시 양산 통도사는 대구에서 교통이 좋지 않아 하루가 넘게 걸리는 곳이었습니. 절이면 절마다 찾아다니는 아들을 만류하기 위해 함께 가신 어머니께 경봉 스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 누고?'
'제 아들입니다.'
'내 도.'

만류하러 가셨던 어머니의 말문이 막혀서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일간 극락암에서 머물렀는데 스님께서 밤마다 불러 '꼭 스님 되려 오나라' 하셨습니다.

그러던 제가 출가에 대한 생각을 접은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양산 내원사에서 대학교 내 불교관련 활동으로 5박6일간 묵었을 때의 일입니다.

대구에 와야 하는데 날이 저물어 비구니 암자인 익성암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면도조차 하지 못해서 산도독같은 젊은 청년을 비구니스님들이 재워줄리 있겠습니까. 묵을 곳이 없어 익성암 다리 밑 개울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에 개울 소리에 눈을 뗐는데 보름달이 너무 환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같구나.'
보름달을 보며 강한 집념이었던 출가에 대한 생각이 사

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스님이 됐다면 더욱 더 부처님 가르침을 펴며 멋지게 살 수 있었겠다' 생각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도서출판 효림의 설립과 <법공양> 창간의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1972년 2월 대학교의 지도교수셨던 이기영 교수님의 이끌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의 불교분과를 맡아 일하게 됐습니다. 12년간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가 끝난 뒤 불교관련 책들을 더욱 집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림출판사를 세우게 됐습니다.

출판이라고는 접해보지 못했던 터라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스님들과 관련된 책을 내며 신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변화는 1992년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2억의 사재를 털어 1억 원은 출판사 자금으로 사용하고 1억 원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불교계는 '법공양'이 없었습니다. 탑골공원 등지에서 이웃종교계는 독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무료배식을 하는데 불교계는 이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함께 연구와 집필 등을 하던 지인의 소개로 그 1억 원으로 '법공양'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조직 구성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법공양이 아니라 법공양을 하자'였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일이 글 쓰는 일이었기 때문에 글로써 부처님 법을 더욱 펴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1995년 2월 <법공양>을 창간했습니다. 창간호는 32페이지에 2000부를 찍었는데 1년 만에 2만부가 됐습니다. 현재는 7만부를 찍어내고 있으며 군법당과 병원 등에도 보내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서포교에 나서며 보람찼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좋은 점은 '법공양'을 하니 당초 하고자 했던 '법공양'이 자연스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IMF년 1998년 <법공양>에 실직자 및 독거어르신 돕기 위한 무료배식을 펼치자고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 짧은 글을 보고 수많은 불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무료배식은 계속 펼쳐 서울 효행의집이 탑골공원에서 7년 간, 현재 대구 효행의집이 현재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네발 지혜학교 등도 건립해 매년 1만 불식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 원력을 가리고 노력하면 어떤 것이든 이뤄집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문서 포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신심 나게 하는 글로써 불교로 이끌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할 수 있는 한 글을 많이 써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 <법공양> 7만 독자들에게 더욱 충실할 계획입니다. 많은 책을 내는 한편 <법공양> 또한 10만부, 15만부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내게 주어진 하루는 '선물'

티베트 여행 에세이 '삶은 어차피...'

하루를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어진 시간에 만족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지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행복으로 충만하고 매일 매일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소박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티베트 사람들이다.



요한 건 집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행복이나 불행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번뇌가 없어야 한다. 즉, 삶의 무게를 줄여야 즐겁다는 것이다. 재물과 명예에 집착하는 인간의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 야크 소와 무엇이 다른가?

문명화된 사회에서 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를 전하는 에세이집 <삶은 어차피 불편한 것이다>는 저자 현진 스님이 티베트에서 느낀 점과 티베트 속담, 불교 경전 문구 등이 적절히 어우러져 있다.

책에서는 티베트의 아름다운 정취와 그 속에서 자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책장의 사진마다 티베트의 독특한 풍물이 가득하다. 저자 현진 스님은 티베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삶은 어차피 불편한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누가 물었다. 오르막이 쉬우냐? 내리막이 쉬우냐? 오르막, 내리막은 상관없다. 중

스님은 이 책에서 스스로에게 충만하지 못한 삶은 늘 궁핍하게 마련이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된다고 말한다.

"모든 존재가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티베트 격언을 소개하며 스님은 자기 성장을 강조한다.

월간 해인 편집위원회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역임한 스님은 이 책에서 "지금 민족 할 줄 알면 인생이 늘 윤택하다"는 지적상락(知足常樂)이란 좌우명을 끊임없이 전한다.

삶은 어차피 불편한 것이다 | 현진 지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3000원

노덕현 기자

상류층의 일상 그 덧없음이어

황석영 소설 '강남동'

소설 <강남동>은 남한사회에서 자본주의 근대화 이면에 감춰진 병폐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1995년 6월 무너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 5장으로 구성된 이 소설의 각장에서 다섯 인물은 근대사에서 자본주의에 적응해가는 인간상을 대변한다.

회무계에 입문해 톱살롱을 운영하던 박선녀(1장)는 백화점 창업주이자 일본군 밀정의 경험으로 미군정청 특무기관의 요원이 되었다가 재벌이 되는 김진(2장)의 후처다.

정치권 실세들과 협잡해 강남 개발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부동산업자 심남수(3장)는 한때 박선녀와 사실혼 관계를 가진다.

조직폭력배 두목 홍양태(4장)는 박선녀와 나이트클럽을 동업한다. 회화중 도시 원로의 딸 임정아(5장)는 하루 용돈 3000원으로 살아가는 백화점 아동복 매장 임



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한다. 둘째 며느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로 주기 위해 백화점에 들렀던 박선녀와 점심으로 5분 만에 김밥을 먹고 손님을 맞던 임정아는 함께 건물 더미 속에 깔려 구조를 기다린다. 박선녀는 생존을 위해 임정아에게 많은 물질적 보상을 약속하지만 결국 죽고, 임정아는 살아

난다.

책은 극단적 자본주의로 흘러가는 사회의 병폐와 거품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반영한다.

이 밖에도 박정희, 이후락 등 실명을 사용하고 제주 4·3사태,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등 당대 역사적 사건도 함께 담아 소설이지만 사실감을 더한다.

저자는 "욕망의 추구로 오히려 서서히 몰락해가는 상류층의 일상은 그 고풍이 어찌된 덧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의 제목을 강남몽이라고 정했다"고 말했다.

강남몽 | 황석영 지음 | 창비 펴냄 | 1만2000원

노덕현 기자

세계 불교사에 매머드급 허리케인이 상륙한다

영산불교가 자신있게 내놓은 불서(佛書)의 초신성! 2500년 불교 교학사를 다시 쓴다



4월 초파일 10만 2천등 항공사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16세 | 371면 | 25,000원, 385면 | 25,000원 - 영어판·일어판 近刊

대행서점 종교서적 부문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30년간 치열한 영불수행을 통해 깊은 산대 속에서 만난 나의 스승 석가모니부처님! 아난이 2500년을 지나 부처님을 진전하고 삼매속에서 들은 진실한 이야기.
"깨달음(영성)은 진정한 삼매를 위한 시작에 불과했다. 무수한 삼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삼매인 대적정삼매에 들었을 때 비로소 육도의 지옥, 아귀, 수라, 하늘세계와 해탈 세계인 극락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보았다. 수행 중에 보는 지옥과 극락은 모두 환영이지만 오직 붓다의 경지에서만은 지옥과 극락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천을 구족하지 못한다면 붓다라고 할 수 없다."

영산불교사상과 본문묘법연화경 381면 | 25,000원
보정정도와 도강된 다보탑 조성을 기념한 다보야래부처님 기도법 연내서. 경전중의 경전인 묘법연화경 본문판본을 소개하고 불세존과의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다보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신불교사상의 실체를 파헤친다 42면 | 소개책자
종교계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불교 사상의 등장을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영혼체 윤회론 158면 | 10,000원

내 안의 '진실한 나'를 찾았다!
깊고 깊은 미개척의 영적 세계, 비밀의 장에서 건네온 우리 자신의 비밀, 겹겹이 겹쳐져 있는 인간의 4개 영체를 소개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자성(自性)은 만물의 근원인 뿐 비인격적 본질을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다!
2000년 넘게 왜곡되어 해석된 무아설(無我說)을 바로잡고 삼법인(三法印)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이 시대 최고의 논서.

관음태고, 관음태고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행복한 삶의 시작과 끝을 결정지어 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보서(寶書). 삼매속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고법'을 소개한 예비 부모의 필독서. 국가와 가정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녀사 선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

불교사에 드러난 석가세존의 실존문제연구(近刊)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과 실존문제를 파고든다.

■ **붓다의 메시지 존평 506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에 대한 불교 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평론.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요해 269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사상적 측면만을 별도로 묶은 요약서.

■ **칙천무후 238면 | 15,000원**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칙천무후, 불세존의 범용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자 동시에 현자사 광명만덕 큰스님의 전신!

■ **영산불교의 법세계 80면 | 10,000원**
두분 큰스님께서 영산불교를 창종하신 이유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성을 펴려.

■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489면 | 15,000원**
수행적 측면에서 바라본 영산불교의 법세계

■ **비교종교학 537면 | 25,000원**
영산불교의 법세계를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 7대 종교를 되짚어 본다.

■ **법문집 I·II·III 631면 | 15,000원, 540면/20,000원, 648면/20,000원** - IV권近刊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 5년에 걸친 현장법문의 생생한 기록

■ **신불교학개론(近刊)**
영산불교 사상연구소에서 다시 쓰는 불교학 교리 개론서.

■ **만화로 보는 영산불교의 사상 시리즈 - 행복초대장 近刊**
쉽게 접하는 불법의 장. 만화라는 매체를 통한 불교 사상의 이해

영산불교사상연구소